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청년농업인 육성 공로로 안성시 표창패 수상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스마트팜 임대형 사업 성과 인정
안성시 농업·농촌 고령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강화
ESG경영 실천 통한 지역사회 기여 강조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등록 2025.12.01 18:00:02



▲ 한국농어촌공사 김영조 안성지사가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여받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1일 '안성시 혁신소통의 날'을 맞아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ESG경영 실천 노력으로 안성시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의 직접 표창패를 수여하며, 안성지사의 지역 농업 발전 기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성시는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안성지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우선 지원하며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번 표창패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안성지사의 주요 성과로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임대 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농 영농정착 △전국 최초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이 꼽힌다. 안성지사는 현재까지 1,217억 원을 투입해 관내 230ha 농지를 매입·비축하고, 그 중 70%를 청년농업인 111명에게 임대해 안정적 영농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2월 준공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청년농업인 3명이 입주해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하며 활발히 출하 중이다. 이 중 한 명은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되어 도지사상과 시장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농지를 원활하게 지원하며 안성시 농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조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더욱 힘쓰며, ESG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